

새정부 “올 6% 성장도 어렵다” 실토

강만수 장관 내정자 “목표치 하향 조정해야” “인위적 경기부양 않겠다” 종전 원칙 고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인 ‘대한민국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관련해 새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6%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민간연구기관들이 올해는 5%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청문회 자리

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 “여건 더 어려워졌다” = 강만수 장관 내정자는 올해 성장률 예측치가 재경부 4.8%, 한은 4.7%, UBS는 3.6%로 하향 조정된 것 등과 관련, “6% 성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새 정부 취임후 시간이 얼마 없고, 당초보다 미국 성장률이 1.3%

밖에 안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는 등 6%를 예기할 때 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으며 대외 환경의 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을에 찬바람 부는데 일지리는 없고, 서민들 지갑은 나가는 것 없고 그러면 민심이 등을 돌릴 텐데 차라리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내세운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방법 아니겠느냐”고 묻자 “유 의원 생각과 똑같다”며 심증을 털어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대로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워 6% 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내심 고민해왔고 그

속내를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낸 셈이다.

◇ “인위적 경기부양 안한다” = 강 장관 내정자는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원칙도 고수했다.

강 내정자는 7% 성장이 유효한 공약이나 질문에 대해 “아직 유효한 공약이자 비전”이라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신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올해 경제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증시는 3월 기술적 반등을 지속, 1,8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증권사들은 3월 증시 전망에 대해 미국의 신용위기가 증시에 여전히 약재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더 악화하기보다는 해소국면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가도 기술적인 반등을 지속해 1,80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27일 내다봤다. 그러나 코스피지수 1,800선 부근에는 두터운 매물벽이 형성돼 있어 추가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증권은 코스피지수 범위 1,600~1,800선을 예상했으며 우리투자증권은 1,650~1,800, 중앙증권은 1,650~1,820으로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의 주가이익비율(PER)이 10.8배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시장 평균 PER 13배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가운데 증시가 미국경제 둔화 우려를 상당부분 선반영했고 미

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3월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유 및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의 부실확대 가능성,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집인대) 불확실성 등은 계속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증시는 기술적 단기 반등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돌출 약재가 발생한다면 이전 저점인 1,600선 부근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

유망투자분야는 낙폭과대주와 저평가 종목에서 향후 이익개선전망이 밝은 전자·반도체, 건설, 기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망하며 세부업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차 등이 제시되고 있다.

3월 주가 1,800 간다

증권사 전망...美 신용위기 해소 국면 낙폭 과대株, LG전자·현대차 등 유망

가 발생한다면 이전 저점인 1,600선 부근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

유망투자분야는 낙폭과대주와 저평가 종목에서 향후 이익개선전망이 밝은 전자·반도체, 건설, 기계 등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망하며 세부업종으로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차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기업 체감경기 한달새 상승반전

새정부 출범·환율 상승 등 수출채산성 향상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등에 따라 대기업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하락 한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00대기업 대상 설문조사(응답업체 552개)를 토대로 산정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102.1로 지난달의 94.3에 비해 7.3포인트 상승하면서 기준치를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4개월 연속 계속된 하락세도 멈췄다.

전경련은 3월 전망치의 호전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수출채산성 향상, 설 연휴가 포함돼 있던 2월에 비해 늘어난 조업일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지만 상승폭은 예년에 비해 크지 않다”고 풀이했다.

BSI 전망치는 기준치 100을 넘어서면 그만큼 해당월의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음을, 100 미만이라면 그 반대임을 각각 의미한다.

최근 전경련 BSI 전망치는 작년 10월의 116.3을 정점으로 11월 112.4, 12월 103.4, 1월 103.0으로 매월 하락했으며 2월에는 기준치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한 경기를 나타내는 실적치는 2월에 95.6을 기록해 전월의 95.2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대기업의 경기전망과 실제 체감경기 간의 차이는 여전히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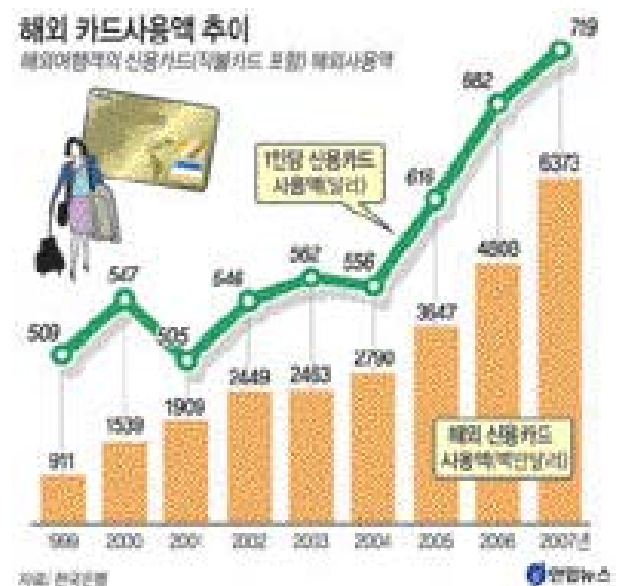
3월 BSI 전망치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01.4)보다는 비제조업(103.3)의 상승폭이 컸고 제조업 가운데는 경공업(103.4)의 호전전망이 중화학공업(100.9)에 비해 우세했다.

부문의별 투자(102.1), 수출(101.7), 고용(101.7), 내수(100.2)는 호전이 전망됐으며 채산성(98.5), 자금사정(98.3)은 부진이 예상된다. 재고지수는 104.2로 전월보다 재고량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했다.



대통령 취임식 와인

(주)광주신세계는 27일 지하 1층 와인 매장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쓰인 '골로도 발 나피베리'를 선보여 고객의 눈길을 끌었다. 이 와인은 과일의 맛과 풍부한 질감을



해외여행객 씬씀이 '평평' 카드 사용 6조원 사상 최대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연간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은 내국인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중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를 사용한 금액은 63억7천300만달러(한화 약 5조9천억원)로 전년보다 32.6%나 급증했다. 이는 199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사상 최고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도 전년에 비해 25.7% 늘어난 887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신용카드 해외사용금액은 719달러로 2006년 682달러보다 5.5% 증가해 씬씀이도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대비 14.8% 늘어난 1천 332만명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 수 644만8천명보다 2배나 많았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인하' 도미노

CD금리 0.7% 포인트 급락... 국민·하나 0.2%P 내리

최근 시장금리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이 정기예금과 저금 등 수신클리콜을 잇따라 인하하고 있다.

은행권 자금난이 해소된 데다 시장금리인 양도성에증서(CD) 금리가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예금금리 인하 추세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6일부터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연 5.55%로 연 0.05%포인트 인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도 정기예금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 적 있어 1주일새 0.15%포인트 떨어진 셈이다.

올초의 연 6.7%에 비해서는 최고 금리가 1.15%포인트 급락했다.

앞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

25일부터 일부 수신클리콜을 0.2%포인트 인하했다.

국민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년제를 기준으로 최고 연 6.1%에서 5.9%로 하락했으며 명품저축자 유예예금 최고 6.0%에서 5.8%로, 국민수퍼정기예금 영업점장 특별승인금리는 최고 5.6%에서 5.4%로 낮아졌다.

하나은행의 1년 정기예금인 여우예금은 기준금리가 연 5.5%에서 5.3%로 인하되면서 최고금리도 연 6.3%에서 6.1%로 낮아졌다.

기업은행은 내부금리 인하를 반영해 28일부터 특대예금 금리를 연 0.1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이에따라 1년 만기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 예금 금리는 최고 연 6.15%에서 연 6.0%로 조정되며 6개

월 CD 예금 금리는 최고 연 5.9%에서 연 5.75%로 낮아진다.

우리은행도 조만간 하이미키 정기예금이 3조원 한도를 채우 경우 예금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1년제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최고 연 5.7%에서 연 5.5%로 연 0.2%포인트 낮출 예정이며 6개월과 2년제도 각각 최고 연 5.4%와 연 5.8%에서 연 5.2%와 연 5.6%로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3년제 이상은 최고 연 5.8%에서 연 5.7%로 조정되며 1억원 이상 가입시 연 0.1%포인트의 금리를 추가 제공 하는 우대금리도 폐지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저금 금리도 연 0.2~0.3%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CD금리는 지난달 10일 5.89%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몰아 26일 5.19%로 0.70%포인트 급락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도 소득 공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수입금 거래내역도 포함

국세청은 27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현금거래 신고분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에 나와있는 현금거래분도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원 등 소비자대상 업종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세무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국한됐다.

현재 소비자대상 업종의 사업자는 190만명이고 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130만명 정도로 미가맹점은 60만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신고할 때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의 과표 양성을 위해 미가맹점에서의 현금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 한·미 FTA와 별개 처리”

정운천 농림 내정자 밝혀

27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부장관 내정자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별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농해수위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이 “지난해 잦은 검역 조건 위반과 최근 리콜 사태 등에도 정부는 수입 위생조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위생 부분은 국민의 안

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과학적 근거, 안전 기준 등을 차질없이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전제 조건으로 쇠고기 등 농업의 양보를 요구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겠나”는 정세균(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쇠고기 검역은 국민 안전 문제고, FTA는 개방 문제만큼이나 섞는 것이 옳지 않고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혁신엔지니어링	정규직 토목설계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1-375-8005
중앙평생교육원	정규직 관리/사무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3	062-521-9931
▶광주광역시정보센터	서버관리사/웹디자인/프로그래머 정규직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3	062-224-8564
포도양주	상담 및 촬영보조(실내근무)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4	062-222-0945
▶대광텔레콤	SK대리점 매장직원 및 전신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4	062-606-8803
결연종합광고	편집디자인 신입/경력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19-602-0033
길면의원	[길면 남성 클리닉] 간호사업무 및 기타서비스업무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62-369-5855
▶ L.S.T	2008년 회계팀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200~2400	03/05	062-650-6525
▶HRN	[광주지역]SK텔레콤 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5	062-529-2671
이모레퍼시픽	헤라, 설화수 매장관리(광주,전주,순천)	초대졸/경력무관	2800~3000	03/05	062-231-1781
중앙 IT 직업전문학교	홍보 및 교육상담/ 총무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3/07	062-223-0050
동인철강	물량산출 및 현장관리직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07	061-323-2560
▶제일소프트	캐드기초업무 및 사무업무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08	062-227-3118
에이테크솔루션	[광주사업점] 해외영업 경력사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3/10	031-350-8168

<광주직포리야 512-6210 제공>

최고급 대형 세단 1억 '체어맨 W' 출시

국산차 중 처음으로 1억원이 넘는 대형 세단이 출시됐다.

쌍용차는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형 세단 '체어맨 W' 신차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체어맨 W의 가격은 CW700(3천600cc급)은 5천950만~8천650만원, V8 5000(5천cc급)은 8천770만~1억200만원이며 이중 1억200만원의 리무진은 국산차 중 기본 판매가격이 처음으로 1억원이 넘는 모델이다.

체어맨 W는 전장 5천110mm(리무진은 5천410mm), 전폭 1천895mm, 전고 1천495mm(리무진 1천500mm)의 규격에 국내 최초로 7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며, 특히 겨울철 결빙된 노면에서 부드러운 후진 2단 출발이 가능하다.

5천cc급 체어맨 W에 탑재된 벤츠 V8 'XGI5000' 엔진은 출력 306마력에 최대 토크 45.0kg·m을 구현한다.